

未處理 工業所有權 급증 관련技術 고도화로 審査기간 길어져

審査처리해야될 工業所有權 出願건수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들어 지난 9월말 현재 審査처리해야할 出願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1.6%나 늘어 모두 12만7천2백28건으로 집계됐다.

審査처리해야 할 工業所有權 을 권리별로 보면 實用新案이 4만4천3백60건으로 가장 많고 特許가 3만4천6백61건, 商標 2만8천5백59건, 意匠 1만9천6백48건의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같이 審査해야 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出願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관련技術이 고도화함에 따라 審査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登錄을 査定하는데 필요한 검색자료등의 전산화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도 審査처리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審査官의 전문성이 뒤떨어질뿐 아니라 審査官의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90년에는 30만건이상이 누적돼 工業所有權의 審査登錄이 크게 지연되어 심각한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90명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審査官을 최소한 1백5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각종 研修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審査官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또한 電算시설의 도입을 통해 出願登錄등 기본업무는 물론 검색자료등 각종 필요한 자료수집 업무를 보다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模造商品 違反業所 675건 摘發 250개 業所중 再指摘된 54개 業所 告發

特許廳은 전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와 합동으로 시내 주요시장, 백화점, 지하상가등 중심상가를 대상으로 外國有名商標 도용제조 및 模造商品판매행위 일제 단속을 폈다. 이번 단속에서는 모두 2천5백30개 業所를 대상으로 調查한 결과 2백50개 業所가 違反業所로 적발되었으며 違反件數는 6백75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업소중 86년 상반기에 指適되어 再指適된 業所 54개소는 告發措置하고 나머지 1백96개 業所는 1차 시정조치했다.

한편 주로 盜用되고 있는 有名商標를 보면 이탈리아 필라가 68건, 美國의 플레이보이가

48건, 프랑스 라코스테가 37건 등 모두 6백7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特許廳은 앞으로도 전전한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해 不正競爭防止法 改正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外國商標의 盜用行爲를 근절할 방침이다.

제23회 辨理士 試驗 最終 11名 合格者 발표

特許廳은 지난 10월 10일 제 23회 辨理士試驗 제3차 시험合格者 11명을 확정, 발표했다.

最終 合格者는 다음과 같다.
金炳鎭 金永煥 南浩鉉 朴海天
宋漢泉 尹萬重 李炳文 鄭文泳
趙治熏 崔德奎 黃宗煥 (8)

韓·日 工業所有權 세미나 열려 韓·日 辨理士會 兩國制度 認 提高위해

韓·日辨理士會가 양국工業所有權制度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양국변리사회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공업소유권세미나, 유관기관 방문 등 공식행사가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있었다.

日本辨理士會 訪韓團은 11월 6일 특허청을 방문하고 특허청장 예방 및 특허청의 심판정 및 자료실등을 둘러 보았다.

그리고 본회의 현황과 大韓辨理士會의 현황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또 이들 방문단은 KOEX에서 개최된 '86발명품전시회 및 우리상표전시회에도 관람했으며, 이어 산업연구원도 방문했다.

이날 저녁에는 대한변리사회 주최 일본변리사회 방문단 환영리셉션이 롯데호텔에머탈드룸에서 개최되었는데 환영리셉션에는 田峻恒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쿠야마(奥山尙男) 일본변리사회 회장, 朴弘植 특허청차장, 李泰燮 본회 副會長 등 양국 변리사회 회원 150여명이 참석,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11월 7일에는 롯데호

텔에머탈드룸에서 「공업소유권법 개정과 금후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韓·日 工業所有權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側에서 특허청의 金英華 抗告審判官이 「今後의 工業所有權法 改正方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金 항고심판관은 우리나라의 공업소유권법 개정작업 경위와 物質特許制度 도입등이 포함된 특허법 개정안과, 특허법 개정안과 관련한 실용신안법, 의장법등의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또 商標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안 요지도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오쓰카(大塚文昭)변리사는 「日本에 있어서의 특허법 등의 改正動向」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했다.

오쓰카 변리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日本이 1985년 內國人の 출원인을 돕기위해 개정한 國內優先權制度의 도입 배경과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 오쓰카 변리사는 美·日, EPO의 특허청과 WIPO가 추진하고 있는 發明保護制度의 조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내에 일본의 특허법을 개정할 것이

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본은 多項制를 개선, 무효심판에 있어서의 외국간행물의 제척기간제도 폐지, PCT 관련제도의 개정, 이의신청기간과 우선권증명서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문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1월 8일에는 일본 변리사회 방문단이 民俗村, 올림픽주경기장, 올림픽공원을 둘러봤으며, 국립중앙박물관도 관람했다.

한편 韓·日辨理士會는 지난 1981년 7월 12일 자매결연을 맺고 그간 여러차례 상호국의 변리사회를 격년으로 방문하여 양국변리사회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양국의 공업소유권제도에 관한 각종 정보교환과 상호국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해왔다.

또 변리사회에 따르면 양국 변리사회의 상호국 방문행사는 공업소유권제도 발전에 상호협력하며,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의 외교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大韓辨理士會 제공〉(☎)